**고등학교 일본어2 (15개정)**

1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18)

미키: 유나야, 오랜만이네. 잘 지냈어?

유나: 응, 덕분에. 또. 1년간 신세지겠네.

미키: 나야말로, 잘 부탁해.

미키: 전철로 갈래? 아니면 모노레일로 갈래?

유나: 글쎄.

미키: 여기에서는 모노레일보다 전철 쪽이 편리해.

유나: 하지만 모노레일을 타본 적이 없으니까 타보고 싶어.

미키: 알았어. 모노레일은 저기야.

짐 무겁지 않아?

하나 들어 줄게.

유나: 고마워.

2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34)

유나: 실례합니다. 잠시 견학해도 되겠습니까?

남자 부원: 상관없어요. 둘러보세요. 1학년입니까?

유나: 아니요, 3학년입니다. 한국에서 온 김유나입니다.

남자 부원: 만화부에서는 만화를 그리거나 스토리를 생각하거나 합니다.

유나: 와, 잘하는군요.

여자 부원: 감사합니다.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.

남자 부원: 만화를 좋아한다면 만화부에 들어오면 어때요?

여자 부원: 그래요. 함께 그려요.

여자 부원: 글쎄요. 해 볼까?

3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50)

마리: 유나는 한국의 대학에 갈 생각이야?

유나: 아니, 일본의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.

마리: 그거 좋네.

유나: 하지만, 일본어로 작문을 쓰는 시험이 있어.

작문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아?

마리: 책이랑 신문을 많이 읽는 편이 좋아.

사토시: 작문을 선생님께 보여 주면 좋아.

유나: 알았어. 그런데, 사토시 군은 센터 시험을 볼 거야?

사토시: 응, 보기로 했어.

유나: 힘들겠다. 열심히 해!

4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66)

미키: 우리, 오늘은 어디에 갈 예정이야?

유나: 한옥마을을 보러 갈 거야.

미키: 한옥마을? 한옥이란 뭐야?

유나: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말해.

한옥마을에서 대략 1시간 정도 걷는데, 괜찮아?

미키: 그렇게 넓어? 하지만 모처럼이니까 힘낼게.

미키: 와아, 멋지다! 드라마에서 본 집과 똑같아.

유나: 집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.

미키: 아아, 그렇구나.

오늘은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되었어.

유나: 그거 다행이네.

목이 마르니까 뭔가 마시자.

미키: 그렇게 하자.

5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82)

미키: 엄마, 텔레비전이 안 켜져.

미키 엄마: 아, 그거, 고장 나 버렸어.

미키: 어? 충격!

유나: 이 텔레비전은 어떻게 해요? 버리는 거예요?

미키 엄마: 아니, 텔레비전은 버리면 안 돼. 재활용해야 해.

유나: 재활용이요?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?

미키 엄마: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. 가게 사람이 재활용 공장까지 옮겨 주니까.

유나: 공짜예요?

미키 엄마: 아니, 텔레비전을 살 때 재활용 비용도 지불한 거야.

미키: 엄마, 밥 먹고 나서 텔레비전 사러 가자.

미키 엄마: 그래.

6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98)

유나: 이것이 ‘갓쇼즈쿠리’구나.

마치 옛날로 타임슬립한 것 같아.

마리: 그러네. 이곳의 집은 3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.

사토시: 인터넷에 의하면 사람이 살면서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.

마리: 저, 실례합니다. 견학할 수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?

통행인: 곧장 가서, 왼쪽으로 돌면 있습니다.

마리: 감사합니다.

사토시: 계십니까? 안을 견학할 수 있습니까?

남자: 네, 들어오세요.

유나: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까?

남자: 물론, 됩니다.

7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114)

미키: 아빠, 뭐 하고 있어요?

아빠: 지진이 와도 책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.

미키: 내 방의 책장은?

아빠: 지금부터 하려는 참이야.

유나: 지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?

미키: 우선, 가스를 잠그고, 텔레비전을 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.

유나: 텔레비전?

미키: 응, 지진 뉴스는 텔레비전이 가장 빠르니까.

유나: 그렇구나. 그 밖에 어떤 준비가 필요해?

미키: 글쎄... 물, 먹을 것, 라이트, 라디오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.

유나: 과연. 물이나 먹을 것도 확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.

8과 읽고 말해 볼까요? (p.130)

미키: 와아, 맛있겠다.

유나: 왜 섣달그믐 밤에 소바(국수)를 먹는 겁니까?

아빠: 이것은 ‘도시코시소바’라고 해서, 가늘고 길게 살 수 있도록 먹는 거야.

엄마: 유나야 한 그릇 더 어때?

유나: 아니요, 이제 됐습니다. 배가 불러요.

미키: 이제 곧 신년이네.

유나: 아저씨, 아주머니, 올해도 정말로 신세 많았습니다.

아빠: 우리야말로 유나 덕분에 즐거웠단다.

미키: 유나야, 이거 먹은 후에 하쓰모데하러 가지 않을래?

유나: 좋아. 신사까지 어느 정도 걸려?

미키: 걸어서 15분 정도.